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 복음서의 신뢰성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저는 마태복음 1부, 복음서의 신뢰성에 관한 크레이그 키너 박사입니다.

Médine 과 결혼했습니다. 콩고 출신의 무송가 키너 (Moussunga Keener). 나는 마태복음에 대한 몇 가지 주석을 썼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대한 이 교육 시리즈를 요청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는 아무나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생은 한 분,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특히 마태복음에서 배우게 될 교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음서를 소개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복음의 의미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문구는 이사야서 52장 7절과 다른 여러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는 사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의미는 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있지만, 먼저 몇 가지 역사적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니 책망할 것이 없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건전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반박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신앙에 반대하는 도전을 할 때 신앙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소개와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으로서 마태복음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자주 제기되었지만 서구를 넘어 때때로 인용되는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예수의 말씀이 진위인지 대리석으로 투표하는 예수 세미나(Jesus Seminar)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언론이 참석한 동안에만 구슬로 투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많은 서방 언론 매체들은 그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인용되었을 수 있는 수많은 TV 제작물 등에서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중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그것은 일반적인 서양의 반응입니다. 아니면 학자들이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에 틀림없다. 아니면 그만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볼 거예요. 아니면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실제로 주류학술도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정확성을 옹호하는 데 특히 옳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Craig Evans, Darrell Bach, Ben Witherington, 나, Craig Blomberg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중도적인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사에 있는 것들은 오래 전에 일어났고 일부 증거가 아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류 학자들이 여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당한 양, 상당한 양을 제시한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회의적이며 회의적인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학계는 성경에 대한 편견을 품어왔고, 그 주된 이유는 성경이 기적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기적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핑계를 찾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인용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우선 장르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르는 무언가를 쓰는 종류입니다. 이제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시작하기 좋은 곳입니다. 망치가 있을 때 망치는 무엇에 사용될 수 있나요? 글썸,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어스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망치가 디자인되는 방식과 디자인의 목적은 디자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못을 두드리거나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종류의 망치를 두드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음, 복음서는 독특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특하셨지만, 우리는 더 넓은 종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글쎄요, 특정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고대에도 현대에도 이것을 전기라고 불렀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역사를 통해 여러분 대다수가 복음서가 전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가장 완벽하게는 Richard Burridge가 Cambridge에서 출판한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것이 전기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복음서가 삶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스어로 바이오, 예수의 전기. 그러나 1915년에 일부 학자들은 복음서가 현대 서양 전기와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국 교회가 옳았으며 그것이 전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세대 동안 자신이 전기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학자들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로 돌아가 보면, 복음서는 전기이지만 현대 전기가 아닌 고대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현대 전기는 일반적으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기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때때로 다른 순서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설교하기가 더 쉽도록 주제별로 일을 정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전기는 개인의 출생이나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됩니다. 고대 전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설교 이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활로 시작됩니다. 글쎄, 많은 고대 전기는 그 사람의 성인 경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고대 전기의 장르에 적합합니다. 전기는 단일 인물에 초점을 맞춘 거의 유일한 종류의 작품이었습니다.

전기는 매우 특별한 길이 범위에 속하며, 이는 복음서의 길이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단지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전기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각각의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해 글을 쓴다면 그것은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작가는 긍정적인 것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Suetonius를 읽어보면 대개 고대 전기에 혼합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는 교수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주로 일종의 역사 저작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복음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 교수님께서 마가복음은 고대 전기이고 고대 전기는 허구이므로 마가복음도 허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의 주장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보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전기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의 고대 전기가 역사적인 종류의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다양한 고전학자 등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설명이 끝나자 그는 '글쎄요,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대 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교수님의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교수이다 보니 교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항상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고대 전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Plutarch, Suetonius 및 기타 고대 전기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장르는 모든 역사적 질문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입증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고대 전기라면 그것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것이고 역사적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역사에서 누군가에 대해 쓰여진 소설이 없습니다. 소설은 대개 완전히 허구의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이 때때로 고대 역사에 가끔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 관한 것이고, 로맨스가 아닌 경우(역시 드물었음), 소설은 최근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소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대 전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는 명확한 출처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누가처럼 역사적인 서문이나 서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고대 소설가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과 전기 작가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도덕적, 정치적, 때로는 신학적인 교훈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복음서가 읽기에 재미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설은 흥미롭고 모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소설과 역사서 및 전기의 차이점은 역사서와 전기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가르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글쎄요, 좋은 전기 작가들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즉, 그들은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얼마나 정확했나요? 음, 장르는 특정 전기 작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전기 작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사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글쎄요, 한 가지 질문은, 그들이 최근 과거에 대해 썼나요, 아니면 먼 과거에 관해 썼나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그들이 출처를 얼마나 밀접하게 고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작가들은 어떤 종류의 출처를 자주 사용했습니까? 먼 과거에 대해 글을 쓸 때 그들은 종종 전설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능한 경우 이름을 기준으로 다양한 출처를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출처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때로는 먼 과거에 대해 글을 쓸 때조차 매우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출처, 이후 출처, 이전 출처 등을 비교하여 이를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거에 대해 글을 쓸 때, 글쎄요, 우리가 이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과거에 대해 글을 쓸 때 목격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목격자를 자문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 이런 일에 관해 이미 기록한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근 과거, 이전 세대 또는 두 세대에 대해 쓸 때 일반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작업하고 여러 사례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글쎄,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아닌 작가는 하나의 주요 출처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목격자라도 다른 출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목격자였다면 어떻게 마가를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마태가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는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목격자라 할지라도 그는 몇 세기 전에 크세노폰이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기록했던 것처럼 여전히 마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탐험의 리더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보다 먼저 출판했고 모두가 당신이 그 출처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전 출처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출처를 중심으로 다른 출처를 엮었고, 그 작품은 친구들의 작은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지거나 때로는 연회나 공개 낭독회에서 읽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듣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특히 이 내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출판 방법에 있어서 크기는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긴 문서를 출판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즉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고대 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편지였습니다. 한 학자 랜디 리차즈(Randy Richards)는 파피루스를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그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미국 통화로 약 2,000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음, 마태복음은 그것보다 두 배나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머리 꼭대기에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책의 최종본이 기록되어 유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복음서는 기초 문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요 문학 작품이지, 머리 꼭대기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은 고대 용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생각합니다. 책 모음입니다.



고대에는 책이 너무 길거나 두루마리가 책을 잘 고정하지 못하거나 매우 어색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큰 두루마리만한 크기입니다. 출판 수단 측면에서도 작품은 연회와 공개 낭독회를 통해 배포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청중은 자신의 사본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원하면 손으로 복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량 생산이란 받아쓰기를 하는 서기관들로 가득 찬 방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읽으면 모두가 그것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품의 대량생산에 가장 가까운 일이었다. 작품이 좋은 평판을 받으면 더 많은 독서와 더 많은 대중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초기 신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방식은 아마도 초기 교회 환경에서였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연회에서 공개 낭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잔치는 교회 예배의 일부인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수에게 지적한 것처럼, 그 교수도 나중에 그것을 인정한 것처럼, 역사와 전기에는 다양한 역사적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Plutarch와 Livy는 특히 먼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쓸 때 상황에 약간의 흥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Tacitus와 Suetonius는 보다 최근의 과거에 대해 글을 쓴 역사가이자 전기 작가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때때로, 특히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글을 쓸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 말한 모든 더러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출처에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들은 로마 역사가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으며,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와 리비우스,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자서전에서 요세푸스는 자신을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유대-로마 전쟁을 마치 우연에 가까운 것처럼 요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부 사항을 다룰 때 고고학은 종종 그를 확인하고, 가이사랴 마리티마 항구에 있는 구조물의 세부 사항까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특정 건축물까지 그를 확증해 줍니다. 그것은 헤롯의 침실 벽에 칠해진 페인트 색깔까지 그를 확증해 줍니다. 요세푸스가 어떻게 헤롯의 침실에 접근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출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부사항은 상당히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을 예상했습니까? 고대인들은 역사가들이 사실을 다루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아닌 엘리트 역사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역사가들은 수사학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청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물을 만드는 데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층계층의 경우 좋은 스토리텔링 기법에 맞게 사물을 형상화하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실제였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실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전기나 다른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려면 가장 흥미로운 정보를 선택하세요. 서스펜스를 강조하는 특정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중단하고 다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만으로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글썸, 수사학은 허용되었지만 너무 많은 비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역시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전기는 역사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허용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설과 역사의 차이.

루키안은 2세기의 웅변가이자 풍자가였습니다. 그는 풍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전기 작가는 사건을 왜곡하는 아첨을 피해야 하며, 나쁜 역사가만이 데이터를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Pliny the Younger는 2세기 초의 정치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독특한 점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들만이 자신의 무역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본 거죠. 폴리비우스는 신약 시대 이전에 글을 쓴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칭찬과 비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 대해 좋은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려 한다면 사실인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Pliny the Younger는 근거가 사실이라면 수사학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약성서가 나오기 몇 세기 전에 저술한 철학자였습니다.

시와 역사의 차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운문으로 역사를 쓸 수는 있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도 다루어야 합니다.

최근 등장인물의 전기를 보면, 그들은 출처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물건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설과는 많이 다릅니다.

Suetonius가 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세기 초에 글을 쓴 로마 역사가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오토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와 오토에 관해 쓴 그리스 전기 작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Otho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Augustus Caesar)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더 나은 선전 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토는 수명이 매우 짧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전기였습니다.

가서 비교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다른 작가들이 Otho에 대해 말한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것은 복음서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각각은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Suetonius와 다른 두 저자 사이에 대략 50개의 통신 지점을 발견했으며, 다른 통신 지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Suetonius의 Otho 전기는 길이가 28문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00단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길이의 약 5분의 1 정도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수에토니우스가 전기 작가로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역사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같은 종류의 출처를 가지고 있다면 마가의 매우 짧은 복음서에서만 대략 250개의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길이는 마태의 절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다른 출처로 고대 전기를 실제로 테스트할 때, 이 모든 전기는 예수 시대 이후에 마가가 쓴 것과 같은 기간 동안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고대 전기작가들이 역사적 정보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머리 꼭대기에서 일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기독교적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복음서가 우리에게 상당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역사학자로 시작하여 데이터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기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모든 세부 사항은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글썄요, 바로 그곳이 바로 학자들이 우리가 역사 비평 방법론 이라고 부르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논평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스 비평, 자원 기록, 양식 기록, 편집 기록과 같은 문제입니다.

소스 내역. 19세기 역사가들은 복음서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소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곳곳에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출처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은 주님의 전쟁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서는 독자에게 열왕기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열왕기 상하가 아닌 열왕기쯤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우리 역대기가 아니라 역대기를 언급하는데 3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출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는 자신이 많은 자료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착수했습니다.

많은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다는 것은 누가가 글을 쓸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관해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그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는 복음서 기자들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좋은 전기 작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소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복사기가 없었어요.

물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캐너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가복음의 약 90%가 마태복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록 중 90%는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John이 말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책을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 즉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에 관해 많은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가가 말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마도 Mark는 그가 사용하는 소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먼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현존하는 최초의 복음서이며 그가 베드로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구전 전통과 메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크는 목격자 중 한 명으로부터 그것을 얻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Q라고 부르는 자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얻지 못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입니다.

겍쳐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소스도 있습니다. 매튜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태와 누가가 모두 마가와 학자들이 Q라고 부르는 다른 공유 자료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Q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그리고 그 사이 어디에서나 대다수의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모든 학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마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가를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하나의 마태가 마가를 축약하는 방식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좀 더 정교한 청중을 위해 확실히 마가의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Mark가 다른 종류의 청중을 위해 문법을 변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마태는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마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번역하거나 표준 그리스어 번역이 아닌 다른 번역을 사용하여 인용합니다. 마가는 항상 표준 그리스어 번역을 인용합니다. 마태는 마가와 겹칠 때마다 표준 그리스어 번역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Matthew가 Mark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다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2세기 초에 글을 쓴 파피아스는 마태가 먼저 로기아를 썼다고 말합니다. 로기아는 종종 주님의 신탁이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 생각에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와 누가가 공유한 자료인 Q라고 부르는 것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또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권위에 따라 출판되자 베드로의 권위에 의존하는 일부 이야기 자료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다르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때때로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Matthew가 Mark를 편집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지 등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고, 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복음 연구를 계속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일부 학자들은 자료비평을 다룬 후 형식비평에 초점을 맞췄다.

복음서에는 구별되는 다양한 문학적 형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비유와 다양한 종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은 신탁과 같으니라.

그러나 형식 비평가들은 이 자료가 초대 교회의 설교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뭔가를 결정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현재 형식에서 예수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주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역사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출처에서만 입증된 자료나 자료가 있다면, 이는 마태와 누가의 공유한 자료에서도 입증되고 마가복음에서도 입증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가들이 말할 것입니다. 음, 이것은 매우 잘 입증되었습니다.

역시 부끄러움의 기준은 꽤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실제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꾸며내고 싶지도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대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화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흥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께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며 심지어 해까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가 아마도 구성하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환경이나 유대와 갈릴리 환경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즉,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환경에는 적합하지만 후기 교회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역사가들은 그런 것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복음서 작가들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신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때때로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적 예수 학문에 관한 책 중 하나를 집필할 때, 저는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역사가들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최소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믿는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방법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의 임계적 최소값이 일어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출처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출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에 너무 빠져서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장담할 수 있는데, 글쎄요, 아마도 여러분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때문에 확실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해야 했던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다면 항상 외부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출처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다른 경우에 해당 출처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의 비판적 접근 방식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그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던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비유사성 기준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선생들이 자주 한 말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후대 교회가 그것에 동의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후대 교회가 그를 위해 그것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만약 나의 학생들이 나가서 내가 말한 어떤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나의 학생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런 접근 방식은 위험합니다.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말한 어떤 것에 내가 동의한다면, 그것은 내가 실제로 말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학자들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따라서 복음서의 신뢰성에 대해 사용된 기준은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기준 중 루돌프 볼트만은 19세기 중반에 전통이 어떻게 확장되거나 축소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EP 샌더스는 여기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Matthew가 Mark를 사용했다는 데 동의한 Bultmann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매튜는 나중에 나온 자료가 이전 자료를 확장한다고 말했습니다. Matthew는 종종 Mark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따라서 볼트만 자신의 기준에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수 모티프는 신비종교 등에서 차용한 것들이라 학술적인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유사점은 그들이 예수에게서 가져와 신비 종교를 읽고 신비 종교를 연구한 유사점입니다. 이러한 일은 나중에, 몇 세기가 지난 후, 신비 종교가 기독교가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차용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전혀 고대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 중 다수는 단지 인터넷상의 현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학자들은 1970년대에 편집 역사라고 불리는 편집 역사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소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 그것이 설교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마태가 마가복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표현을 바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태는 마가의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가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요? 그리고 매튜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변화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천국에 대해 말합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왕국을 네다섯 번만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바꾸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가? 아니면 매튜가 청중에게 더 친숙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로마나 그와 비슷한 곳에 있는 청중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청중 중에는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rk는 청중을 위해 그것을 번역합니다.

마태는 유대인 청중을 위해 그것을 다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차이점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는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한 그루가 즉시 말라 버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다른 한 그루도 말라버렸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 모두 같은 믿음의 교훈을 주시나요? 때때로 제자들은 물건을 얻는 데 느렸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생각은 매튜가 자신이 자주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논리적인 순서로 일을 정리합니다.

이제 Mark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들어가서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튜의 경우, 그는 일을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은 고대 전기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고대 전기는 항상 그랬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르의 일부일뿐입니다.

우리는 평행 구절을 하나님의 왕국, 천국 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편집 기록이나 편집 기록은 이유를 묻습니다. 특별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편집 비평을 수행하는 일부 초기 비평가들이 이것을 너무 멀리까지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Mark와 Q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틀림없이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출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유일한 출처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의 스타일에 맞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작가들은 항상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물을 담아냅니다.

그것은 고대 문학의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Luke는 Mark를 사용할 때 Mark의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편집 비평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건 그렇고, 우리가 계속할수록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코스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나머지 코스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적어도 서양 수업 등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표준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고대 역사가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역사적 정보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복음서를 읽을 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축소비판의 또 다른 문제는 모든 변화가 신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Luke는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Mark의 문법을 정리합니다.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를 왕이 아닌 분봉왕으로 묘사하거나 특히 그를 그렇게 묘사할 때 마가의 언어를 더욱 정확하게 만듭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의 청중과 천국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Matthew는 때때로 공간 제약 때문에 Mark를 축약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가 지붕으로 내려갔고, 예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고치셨지만 지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마태가 사유 재산의 파괴에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내 생각에 마태는 아마도 공간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그것을 압축하여 이야기의 주요 신학적 요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역은 고대의 표준 수사학 연습이었습니다.

계정을 다시 말할 때 자신의 말로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론자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옹호자들은 때때로 문구나 순서의 차이가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여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전기나 역사서의 장르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집비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었다. 작가가 포함하는 내용은 작가가 적용한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가 나에게 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내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바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 말은,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조점은 단순히 저자가 무엇을 바꾸는가를 보는 것 이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모든 독자나 마태복음의 청중이 보통 한 사람이 읽고 회중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마치 마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마가의 변화된 말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마가복음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주제를 추적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주요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종류의 세부 사항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관련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들의 진정성을 옹호할 수 있나요? 역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학자들이 도달한 몇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르적으로 보면 복음서는 전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들이 묘사하는 사건 직후에 작성된 서면 자료를 사용합니다.

복음서는 또한 목격자들로부터 유래된 건전한 구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실제로 우리에게 자신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처음부터 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그가 기록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서면 출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는 목격자들의 구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3절에서 누가는 자신의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내용은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꾸며낸 이야기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려는 내용의 개요이기 때문입니다.

루크의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의 연대를 62세에서 90세 사이로 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누가의 연대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실제로는 이 범위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누가의 연대를 60년대로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70년대에 데이트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80년대에 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학자들이 아닌 소수의 학자들로서, 누가복음과 그 연대를 훨씬 나중에 기록한 다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62년 이전의 경우, 사도행전은 실제로 62년경에 끝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누가를 62년 이전에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은 누가와 사도행전을 합친 제2권입니다.

하지만 Luke가 글을 쓸 때쯤에는 중간 낱자를 약 75로 잡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맞을 것 같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습니다. 60년대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 어딘가에서는 약 75의 중앙값 범위를 사용합니다.

누가가 기록할 무렵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일찍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45년 안에요.

자, 만약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45년 전에 알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알았던 일들을 말한다면. 우리보다 4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기억상실에 가려져 있는 걸까요? 우리 중 일부는 내 나이를 말하기가 싫지만 일부는 약 4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는 그랬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격자들의 살아있는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누가는 또한 2절에서 구전 자료의 가용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 출처가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전 전통에 관한 기술적인 맥락에서, 언어 전달인 복막 절개술은 철학 학교 등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할 세심한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여기 제 이웃인 안나 굴릭(Anna Gulick)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96세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미국 출신인데도, 지금은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안나는 96세입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이전, 확실히 사람들이 라디오를 많이 사용하기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현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미국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 소스를 통해 이 정보 중 일부를 다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전통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구전전통이 수백년 동안 정확하게 계승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는 가치를 두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치를 두었던 일부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문화에 따라 다르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구두 전달은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음, 여기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다룰 내용의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암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아람어 리듬과 교회 내 목격 증인들의 명성에 대한 증거와 주석, 말씀 모음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로 고대의 암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기록되기 직전에 구두로 전달되는 독점적인 구두 기간은 예수의 공개 사역과 마가복음 기록 사이의 기간보다 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학자들은 대략 40년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학자들은 대략 40년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전 전통이 아직 지속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세기 초의 파피아스는 그것이 그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기록된 복음서보다 구전 전통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물이 기록되기 시작하기 전의 구두 기간은 한 세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암기 이야기꾼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웅변가는 웅변의 다섯 가지 기본 임무 중 하나가 자신의 연설을 암기하고 그것을 암기하여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설의 길이가 두 시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초등교육은 암기를 강조합니다. 교사의 제자들, 그것이 그들의 주된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것들은 이 구전 전통의 한 세대나 두 세대 안에, 때로는 더 일찍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서의 경우, 우리는 가장 초기의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록된 것이 마가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읽거나 쓸 수 없는 많은 문맹 음유시인들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꽤 긴 책 두 권입니다.

내 말은, 고대 용어로 일리아드는 24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엘리트들에게 무식하다고 멸시했던 이 고대의 음유시인들은 이것을 기억 속에서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능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항상 동일한 기본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훈련된 기억의 관점에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니모닉이나 사물의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 세네카는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방금 들었던 순서대로 2,000개의 이름을 정확히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절을 200개까지 거꾸로 암송할 수 있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저서 The Controversiae 에서 한 세대 전 웅변학교의 동급생들로부터 들었던 100개가 넘는 연설 중 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후, 그는 젊었을 때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연습 연설을 노년기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로 세네카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외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경매를 듣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팔린 모든 품목, 그것이 팔린 가격, 그리고 그것이 팔린 사람을 메모 없이 반복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냥 기억에서.

아니면 시 낭독회에 갔던 또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시를 읽고 있었는데, 낭독이 끝난 뒤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저건 표절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시를 썼다.

당신은 내 시를 훔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를 썼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뒤에 있던 사람이 '아뇨, 그냥 농담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읽는 동안 나는 그것을 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낭송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읽는 동안 그것을 외웠기 때문에 그것을 낭송했습니다. 그는 단지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오늘날 서구에서는 기억에 대한 강조를 훨씬 능가하는 기억에 대한 강조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기억력을 크게 강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랍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코란 전체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에서 누락된 기억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기억을 더 강조합니다. 귀중한 선물입니다. 연설에 관해서도 연설가의 다섯 가지 기본 임무 중 하나는 연설을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길이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고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세계에는 두 가지 주요 고등 교육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사학, 즉 웅변술, 전문적인 대중 연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토라와 성경에 초점을 맞춘 고급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제자, 기억, 메모. 기억력은 처음 1~2세대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목격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는 또한 학교 환경에서 특히 조심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연습을 하고 선생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글썄, 그 두 요소는 모두 복음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논쟁의 문제였지만 교회는 학교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명한 지도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저명한 지도자들은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생님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전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그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역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복음서에는 나중에 사용되었던 표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암기였다.

그것은 매우 눈에 띄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유명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더 넓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암기가 중요한 문화의 일부일 것입니다. 더 발전된 수준, 즉 십대 중반에 시작되는 고등 교육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아마도 대부분 십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고등 교육에는 연설가를 위한 암기, 연설에 유용한 많은 연설과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또한 철학 학교에서는 학교 창립자의 가르침을 외우거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외울 것입니다. 그리스 학교 창립자들의 말은 각 학교의 구성원들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창립자들의 가르침은 종종 그들의 공동체에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자들은 나가서 그들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출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철학 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철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글을 쓴 루키안은 전날 강의를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철학 학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그들이 전수한 전통에 따라 전날 선생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반복할 수 있을 때까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시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라면, 여러분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훌륭한 암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나는 당신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사람들이 정말로 스승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반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타고라스학파까지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사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이견 관참은 행동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랍비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토라에 어긋나거나 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한 랍비가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다가 그의 침대 밑에서 제자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말했다, 내 침대 밑에서 뭐 하는 거야? 제자는 우리가 스승의 행동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제자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요점은 제자들이 교사의 모범으로부터 실제로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천 명에게 돌아가고 당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슬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인 전송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송(net transfer)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전수하는 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람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사의 가르침의 정신에 실제로 반대되는 교사의 말을 출판하거나 말한다면, 그들은 즉시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박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교실에서 가르치거나 회중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바라건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기억이며, 이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필기에 관해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제자가 필기를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종종 스승의 가르침을 출판합니다.

그것은 예상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까지 그러한 일은 5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고급 학문 모두에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수사학에서 사실이었습니다. 수사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uintilian은 웅변 교수이자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Quintilian의 남학생 학생들은 그의 강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메모한 후 나가서 그의 가르침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고 Quintilian은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노트에서 나의 문법적 실수 중 일부를 잡아냈고, 그들이 먼저 그것을 교정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은 심지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메모해 둔다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름도 꼭 기재해주세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대인 제자들은 구술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메모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는 더 큰 자료 블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 장치로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교육 수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비록 어부가 농민보다,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나 확실히 세금 징수원은 그러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파피아스는 실제로 세금 징수원인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메모를 했고 어느 시점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메모를 출판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것들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부활 후에 그것들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메모를 하지 않는 유대 전통에서는 우리가 교사의 말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 세대, 두 세대 뒤에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복음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유대인 제자들, 우리가 그들에 관해 출처를 통해 알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은 암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성경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큰 문제였습니다. 한 랍비는 학생이 물 한 방울도 잃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좋은 물탱크와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자료에서 나온 이 증거가 복음서보다 늦었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증거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랍비들의 증거는 훨씬 나중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고대 자료에서 얻은 다른 모든 증거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증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한 모든 증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든 증거를 설명하면서 사실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나는 그 주장에 큰 신뢰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는 우리가 복음서가 순전히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보존된 예수에 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사실상 모든 학자들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선생이었다는 데 동의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교사의 다른 제자들보다 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유한 공통 자료가 이미 유포되고 있었고, 목격 증인 중 일부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 때, 아마도 마지막 신약 문서에서 예수를 분리한



것은 단 한 생애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게 만드는 기독교적 편견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독교적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다른 문서를 보는 방식으로 역사적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그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더욱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믿을 만한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증거를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좋은 이유가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1부, 복음서의 신뢰성에 관한 크레이그 키너 박사입니다.